



*THE FIRST,
THE BEST*

혁신을 거듭하다

최상의 기술력,
최고의 제품에 대한 SIMPAC그룹의 열정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계 및 합금철 제조기업으로서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철강 유통/가공에서 프레스 제조, 주조/주물,
합금철 생산, 타이어 제조 설비 제작에
이르기까지, THE FIRST, THE BEST를
향한 SIMPAC그룹의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SIMPAC STORY 2015 SPRING VOL.30

SIMPAC STORY

2015 SPRING VOL. 30

기승(承)전결:
성장의 싹을 틔우다



SIMPAC Group



SIMPAC 홀딩스

SIMPAC그룹 지주회사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



SIMPAC

글로벌 프레스 메이커
• 중소형, 대형 프레스 제조



SIMPAC 인터스트리

고품질의 주조주물 선도기업
• 산업기계, 감속기 및
부품 생산



SIMPAC 산기

No.1 기술력의 타이어
제조설비 전문 기업
• 가류기, 성형기, 재단기 등
제작



SIMPAC 메탈로이

국내최초 합금철
개발/생산 기업
• 페로망간, 실리콘 망간 생산
• 고분자 화학사업



SIMPAC 메탈

고부가가치 합금철 생산기지
• 고품질, 고부가의
중저탄소 페로망간 생산



GROWTH

SPRING SIMPAC 캠페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실패를 거듭할 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실패의 과정에서 얻는 경험들이 성공으로 가는 발판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전자처럼 단순히 성공의 확률을 높인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막 걸음마를 떼는 아이들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몇 번이고 넘어지며 무릎에 상처가 날 때쯤엔 걷는 것에 제법 익숙해지니까요. 실패란 사실 ‘경험하다’의 동의어일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 보어는 한 분야의 전문가를 “아주 작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란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는 이가 아닌 다양한 시도 끝에 많은 경험을 축적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SIMPAC인 여러분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또 동료들의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SIMPAC STORY

SIMPAC STORY
2015년 SPRING
통권 30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5년 4월 30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02-3780-4907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IR큐더스 02-6011-2000
편집 및 디자인 ㈜IR큐더스 02-6011-2000
인쇄 심진커뮤니케이션즈

사보 담당자
 ㈜SIMPAC홀딩스
 이승훈 대리
 02-3780-4906
 gausy@simpac.co.kr
 이용기 사원
 02-3780-4923
 wklee@simpac.co.kr
 손인성 사원
 032-590-2023
 isson@simpac.co.kr
 ㈜SIMPAC
 이해정 사원
 032-510-0020
 hjlee@simpac.co.kr
 ㈜SIMPAC인더스트리
 민혜림 사원
 032-590-8817
 hrmin@simpac.co.kr
 ㈜SIMPAC메탈로이
 선광규 대리
 054-271-8724
 kgsun@simpac.co.kr
 ㈜SIMPAC메탈
 이준기 대리
 041-360-0124
 jklee@simpac.co.kr



- 04 최고의 시수 부서수를 찾아라!
우리가 바로 SIMPAC의 파트너들
- 18 차 한 잔 나누며 Talk Talk
SIMPAC그룹 3사 영업의 달인
- 22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품질지원팀
- 26 SIMPAC패밀리
SIMPAC 품질지원팀 김중석 계장과 조립2반 김철수 사원
- 30 기획 칼럼
생산적인 여가 활용법
- 34 With Us 01
SIMPAC홀딩스 전략구매실 및 SIMPAC 임직원 워크숍 현장
- 36 With Us 02
SIMPAC그룹 신규입사자 역량강화 과정을 마친 7인의 이야기
- 40 What's the best?
SIMPAC메탈로이의 합금철
- 42 SIMPAC News
SIMPAC 소식
- 44 사진으로 말해요
Photo Diary
- 46 Letter from SIMPAC인
당신을 칭찬합니다
- 47 우리들의 이야기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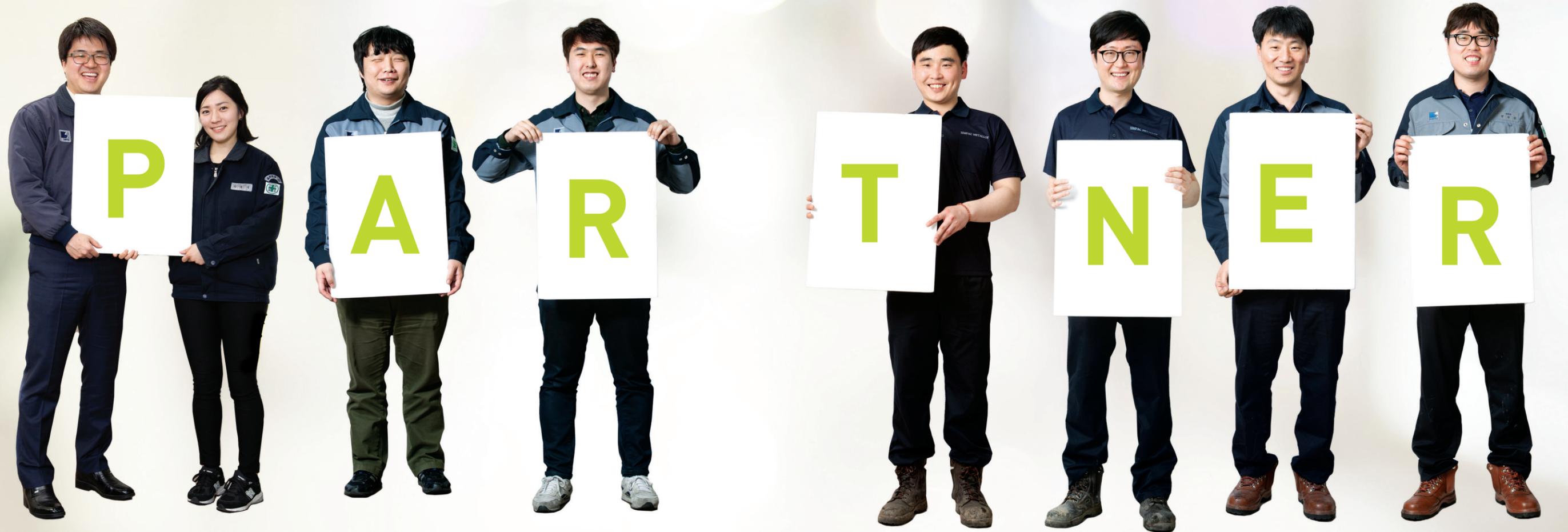


최고의 사수 부사수를 찾아라!

우리가 바로 SIMPAC의 파트너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무엇에든 서투르고 실수 만발이라 늘 긴장하고 있게 마련인 그런 때가 있다. 그렇게 움츠러들어 있을 때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거나, 괜찮다고 토닥여주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겠냐고 해결방법을 알려준다면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감사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멘토와 멘티, 또는 사수와 부사수라고 일컫는다. 하루의 대부분을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일터에서 믿을 만한 사수, 부사수가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각 사에서 멋진 호흡을 자랑한다는 콤비 파트너들을 만나보았다.

- ◎ “우리는 ‘차와 쿠키’처럼 잘 어울리는 멘토와 멘티!” SIMPAC 재무기획팀 최은혁 대리 & 기술지원팀 김슬기 사원
- ◎ “든든한 형과 귀여운 동생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팀 워크!” SIMPAC 인더스트리 설계팀 배성주 과장 & 하재준 사원
- ◎ “눈빛만 봐도 ‘알아서 척척’ 통한다” SIMPAC메탈로이 1공장 전기로 김상운 사원 & 김상민 사원
- ◎ “배려하는 마음 속에 일에 대한 열정도 새록새록~” SIMPAC메탈로이 2공장 정련반 강홍우 사원 & 변상관 사원



SIMPAC 재무기획팀에서
자금과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은혁 대리입니다.



SIMPAC
재무기획팀 최은혁 대리 &
기술지원팀 김슬기 사원

우리는 '차와 쿠키'처럼
잘 어울리는 멘토와 멘티!



지난해 11월, SIMPAC의 새 가족이 된 김슬기 사원에게는 회사생활의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 바로 신입 사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연을 맺은 '멘토' 최은혁 대리다. 때로는 사이 좋은 오누이처럼, 때로는 호흡이 잘 맞는 선배처럼 서로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났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은혁 대리 2011년에 SIMPAC에 입사, 현재 재무기획팀에서 자금과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슬기 사원 지난 2014년 11월에 입사해 현재 R&D 기술지원팀에서 기계설계를 맡고 있어요.

멘토와 멘티가 된 과정,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 궁금합니다.

최은혁 대리 지난 12월 신입사원 교육기간 중에 멘토와 멘티를 매칭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11명의 멘토와 11명의 신입사원이 모인 가운데, 멘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멘티들이 무작위로 뽑아서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슬기 사원이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뽑았죠. 예쁜 여자 신입사원과 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웃음)
김슬기 사원 대리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신 성격 같아서 걱정하기도 했어요.

최은혁 대리 정말이야? 이렇게 되면 저도 솔직하게 말해야겠는데요. (웃음) 사실 김슬기 사원을 처음 봤을 때는 전형적인 서울깡쟁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전라도 광주 출신이고, 서글서글하면서 편안한 성격이더라고요.

김슬기 사원 저도 처음에 느낀 걱정은 기우였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재미있으시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또 워낙 웃음이 많아서서 함께 있다 보면 절로 유쾌해져요. 그러다 보니 금세 친해질 수 있었고요. 그렇죠?

최은혁 대리 맞습니다.

SIMPAC의 멘토와 멘티가 총 11팀인데 그 중에서도 사이가 각별하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김슬기 사원 한 달에 한 번 멘토와 멘티들이 모두 모이는 멘토링 데이가 있어요. 그때 회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또 대리님께서 회식 다음 날에 굴국밥으로 해장을 시켜주시기도 했고요. 의무적인 모임에서 끝나지 않고 따로 신경을 써주시니까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종종 차 한 잔하며 이야기 나누는 티타임을 가지기도 하고요.

최은혁 대리 김슬기 사원이 워낙 붙임성이 좋고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덕분이죠.

김슬기 사원 그냥 둘 다 성격이 좋은 덕분이로 해둘까요?

최은혁 대리 그럴까? (웃음)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새해를 기념해서 차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김슬기 사원도 직접 구운

기술지원팀의
신입사원
김슬기 사원입니다.



**최고의 사수
부사수를 찾아라!**

SIMPAC 재무기획팀
최은혁 대리 & 기술지원팀
김슬기 사원

쿠키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선물을 주고받자고 약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기하고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김슬기 사원 주고받은 선물도 어쩔 차와 쿠키였어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지 않아요? 역시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리님이 주신 차를 마실 때마다 팀원들에게 자랑하곤 해요.

멘토 역할은 어떻게 맡게 되셨나요?

최은혁 대리 멘토링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로 생긴 사내제도입니다. 한 부서에서 한 명씩 멘토 역할을 할 직원을 뽑았고, 우리 팀에서는 제가 하게 된 거죠. 사실 처음에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제 알기 어렵기도 모자란 사람인데 멘티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웃음) SIMPAC에 입사하기 전 다니던 회사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멘티였고, 멘토가 되어준 선배가 계셨죠. 그 분이 정말 저를 잘 챙겨주고 도와주셨거든요. 그런 좋은 기억 덕분에, 저도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서 진심으로 멘티를 챙겨주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김슬기 사원 대리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신입사원인 제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든 다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팀이 다르다 보니 업무적인 조언보다는 회사생활에서의 예의나 사내문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좋아요.

최은혁 대리 정말이지?(웃음)

김슬기 사원 그럼요.

**멘토링 프로그램이 두 분의 회사 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나요?**

김슬기 사원 멘토링 프로그램 덕분에 회사 생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최은혁 대리님처럼 진심으로 멘티를 대해주는 분을 만난 게 행운이죠.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신입사원 입장에서 부담 없이 고민을 터놓을 수 있는 멘토가 최고잖아요. 그런 면에서 최은혁 대리님은 최고의 멘토예요. 저 역시 나중에는 후배를 든든하게 챙겨줄 수 있는 멋진 멘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자 신입사원이 들어온다면, 같은 여자로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혁 대리 멘토링이라고 하면 멘토가 멘티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제가 배우는 점도 많습니니다. 김슬기 사원을 포함한 신입사원들의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니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입사할 때의 초심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달



에 한 번 있는 멘토링 데이를 통해 다른 부서의 직원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예요.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만 보게 되는데, 다양한 부서 직원들과 만나며 관계를 확장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공식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은 3월까지인데요.
앞으로는 어떤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김슬기 사원 이제 서로 불 일 없는 사이가 되는 건 아니죠?(웃음)

최은혁 대리 그럴 리가요. (웃음) 지금까지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였고, 진짜 멘토 멘티 관계는 이제부터죠. 김슬기 사원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일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최선을 다해 알려주는 멘토, 담당할 일이 있을 때는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멘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슬기 사원 대리님 말씀처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처럼 잘 지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멘토와 멘티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을 배우고 역량을 키워서, 마냥 도움을 받기보다는 대리님께도 도움 드릴 수 있는 멘티가 되고 싶어요.

최은혁 대리 돌이켜보면 우연히 주고 받은 선물인 '차와 쿠키'가 저희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즐거운 티타임을 만들어 주는 차와 쿠키처럼, 서로에게 편안한 휴식이 될 수 있는 멘토와 멘티로 잘 지내겠습니다.



최은혁 대리님은 무뚝뚝할 것 같았지만, 은근히 잘 챙겨주시고 자상한 분이십니다. 최은혁 대리님,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김슬기 사원, 회사생활이 힘들어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길 바랄게. 기운 내, 파이팅!



**최고의 사수
부사수를 찾아라!**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배성주 과장 &
하재준 사원



아직은 배울 것이 많은 설계팀 신입사원 하재준입니다



**든든한 형과
귀여운 동생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팀워크!**

SIMPAC 인더스트리
설계팀 배성주 과장 & 하재준 사원

푸근하고 자상한 인상의 배성주 과장과 장난끼 어린 밝은 얼굴의 하재준 사원. 둘의 모습은 사수와 부사수 관계라기보다는 사이 좋은 만형과 막냇동생을 연상시킨다. 투박한 말과 장난 섞인 농담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두 남자의 진한 우정 이야기 들어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의 배성주 과장입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배성주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의 배성주 과장입니다. 지난 2004년에 입사한 이후, 고객이 원하는 스펙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재준 사원 저는 SIMPAC인이 된 지 2년 반 정도가 된, 아직은 배울 것이 많은 설계팀 신입사원입니다. 주로 사수이신 배성주 과장님을 도와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매우 돈독해 보입니다. 첫 만남은 어떠셨나요?

하재준 사원 SIMPAC인더스트리가 제 첫 직장이라 처음 출근하는 날, 긴장이 많이 되고 걱정도 컸어요. 하지만 팀원 분들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수이신 배성주 과장님은 처음 입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푸근하고 친한 형처럼 대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종종 애교로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배성주 과장 그제 애교였던 말이야?(웃음)
하재준 사원 애교라기보다는 장난에 가깝죠?(웃음)
배성주 과장 사실 하재준 사원과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팀에 오랜만에 들어온 신입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마냥 귀여운 막내동생 같았습니다. 특히 입사했을 당시에는 더욱 애타게 보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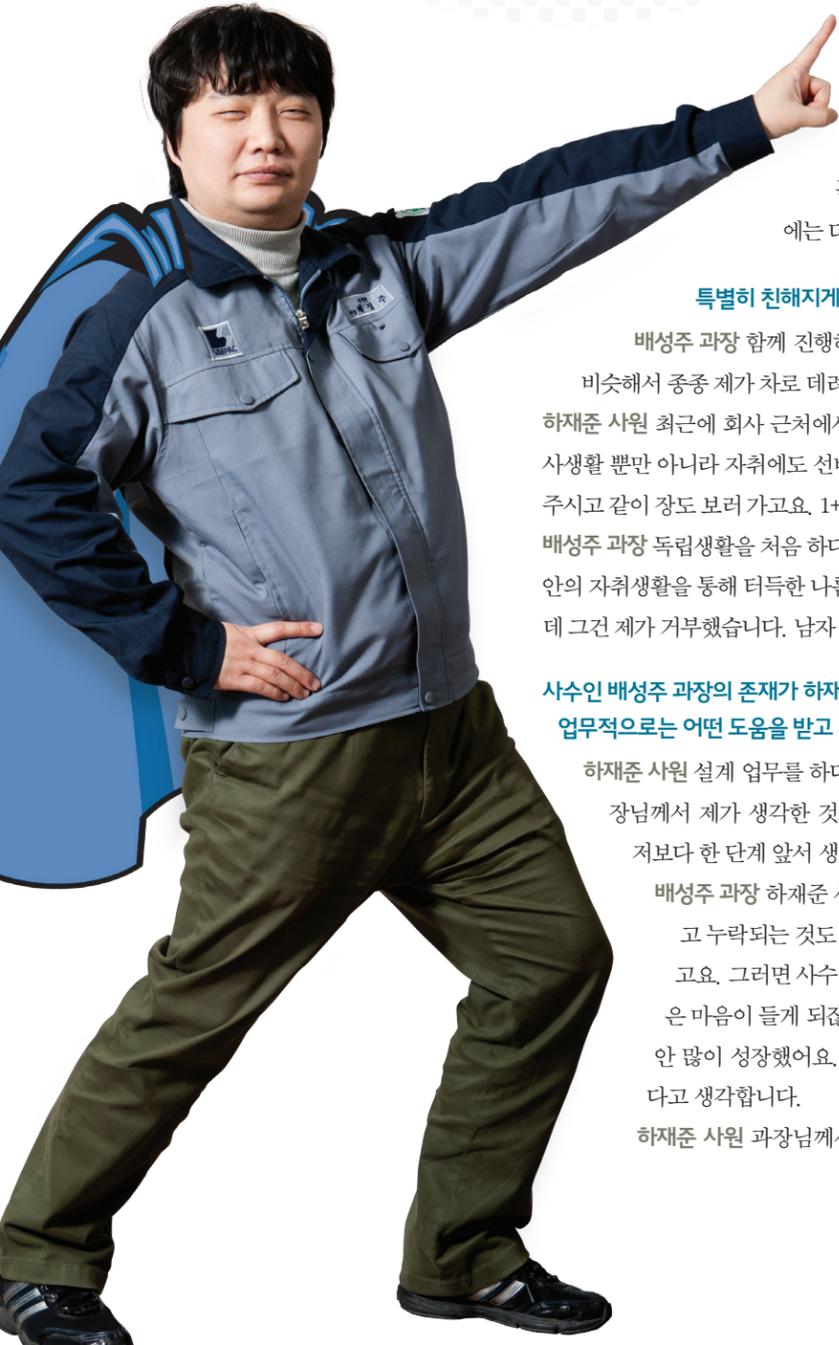
특히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배성주 과장 함께 진행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습니다. 집 방향이 비슷해서 종종 제가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재준 사원 최근에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과장님도 인천에서 혼자 살고 계시요. 회사생활 뿐만 아니라 자취에도 선배이사라,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어떤 물건이 필요한 지도 알려주시고 같이 장도 보러 가고요. 1+1 제품을 사서 나누기도 했습니다.(웃음)
배성주 과장 독립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 장을 볼 때 뭘 사야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자취생활을 통해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를 알려준 거죠. 사실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도 했는데 그건 제가 거부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놀러 가서 뭐하겠어요.(웃음)

사수인 배성주 과장의 존재가 하재준 사원에게 특별하겠어요.

업무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신지요?

하재준 사원 설계 업무를 하다 보면 틀리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면 과장님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세요. 늘 저보다 한 단계 앞서 생각하시는 과장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성주 과장 하재준 사원이 워낙 일을 잘합니다. 보통 신입사원 시절에는 실수가 많고 누락되는 것도 많기 마련인데, 도면 검토 작업한 것을 보면 꼼꼼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수 입장에서 아무래도 더 믿음이 가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좀 어리바리한 면도 있었지만,(웃음) 그동안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기본기는 탄탄하게 다졌으니 앞으로 성장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준 사원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죠.(웃음) 업무적인 도움 외에 미래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니까요. 설계를 전공하고 업으로 삼고 있지만 입사 초기에는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설계를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고민들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과장님께서 진심 어린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배성주 과장 저도 하재준 사원과 비슷한 시기를 겪었거든요. 당시 저의 사수였던 상사 분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듣고 했고요. 그런 과정 끝에, 설계란 기계 분야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해서 뒤쳐지지 않는 것이 관건이죠. 이런 과정을 지나왔기에 하재준 사원의 고민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을 하면서 점차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한 프로젝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재준 사원 저희 기계가 아닌 타 회사의 기계를 스케치하고 수리하는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도 그런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는데, 서투른 신입사원인데다가 저희 기계가 아니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과장님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나중에 기계가 이상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배성주 과장 타 회사 기계 수리는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지만,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면 실력이 많이 늘고 다른 기계에 대한 노하우도 쌓을 수 있어요. 저 역시 성공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고, 신입사원이었던 하재준 사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던 프로젝트라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의 사수와 부사수 관계가 되길 바라시나요?

더불어 서로에게 원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배성주 과장 제가 신입사원이던 시절, 도움을 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저를 이끌어주는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회사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당시 제 사수셨던 강윤정 차장님께 하나하나 일을 배우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좋은 사수를 만나 배우고 얻은 것들이 많았기에, 지금의 제 부사수인 하재준 사원에게도 부족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제가 아는 것들을 전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준 사원 지금도 워낙 잘해주시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서, 더 사이가 좋아지면 팀원들에게 놀림받을 것 같아요.(웃음) 지금처럼 잘 통하는 사이로 업무를 잘해나가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성주 과장님이 올해 꼭 장가를 가셨으면 해요.(웃음) 남자가 보면 좋은 남자를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진짜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거든요. 배성주 과장 하 사원이 알아주는 건 의미가 없는 데.(웃음) 하재준 사원은 지금도 잘 하고 있어서 특별히 바랄 것은 없어요. 다만 내년쯤이면 막내를 벗어나 사수의 위치가 될 수도 있으니, 그때를 준비하면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으면 합니다.

서로의
이름으로 전하는
삼행시편지!

배성주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품도, 인품도 좋은 남자입니다.
주변에 관심은 여자 있으면 연락주세요!

하루하루를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서 함께 열심히 나아가자!



눈빛만 봐도 '알아서 척척' 통한다

SIMPAC 메탈로이
1공장 전기로 김상운 사원 & 김상민 사원

신입사원과 조를 이룬 선배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다. 후배는 그런 선배의 조언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 중이다. 호흡을 맞춘 시간은 짧지만 이미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는 SIMPAC메탈로이 1공장 최고의 사수와 부사수, 김상운 사원과 김상민 사원을 만났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상운 지난 2007년에 입사를 했고, 현재는 B조에서 2호기 출탕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김상운 선배님과 함께 2호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사한 새내기 사원으로 2호기를 맡게 된 것은 올해 1월부터고요.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김상운 저희 현장의 경우 보통 1년에 한 번씩 조가 바뀝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과 조를 이뤄 일해왔어요. 김상민 사원의 경우 1호기에 있다가 올해 2호기로 넘어오면서 사수와 부사수로 인연을 맺게 되었죠. 그동안은 어느 정도 경력을 지닌 직원들과 함께 했던지라, 신입사원인 김상민 사원과 한 조가 되었을 때 사실 걱정이 좀 되었어요. 특히 2호기의 경우 다른 데보다 크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신 아닌 불신이 있었죠 (웃음)

김상민 당연히 그러셨을 거라 생각해요.

김상운 처음에만 잠깐 그랬어요 (웃음) 이제는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자기 일을 찾아서 잘 합니다. 우려와는 달리 금세 호흡을 맞출 수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김상민 사원 덕에 편할 때가 많아요.

김상운 선배님을 도와 출탕 작업을 맡고 있는 새내기 신입사원 김상민입니다.

김상민 빈말이 아니라, 선배님께서 잘 이끌어주신 덕이라 생각해요. 모르는 것이 많은 신입사원과 일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색 없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가르쳐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말수가 적어서 다가가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웃음)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엄격하게 가르쳐주시고 쉬 때는 형처럼 편하게 해주셔서 무척 좋았습니다.

김상운 말은 이렇게 좋게 해주지만, 김상민 사원도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웃음) 저도 신입사원 시절에 선배에게 일을 많이 배웠는데,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지만 일을 할 때에는 엄격하게 배웠어요. 지나고 보니 그렇게 배워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일을 할 때는 정석대로 가르쳐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김상민 저도 선배님 생각에 동의해요. 덕분에 회사 생활에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2호기로 옮겨온 지 넉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선배님 덕분에 짧은 기간에 비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물론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지만요.

사수로서 부사수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상운 김상민 사원은 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쉬라고 말해도 미리 작업할 것을 준비하고, 자신이 맡은 일 외에 다른 부분도 배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기특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열심히 묻고 탐구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 친구라,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상민 너무 띄워주시는 것 같아요 (웃음)

김상운 진짜야. (웃음)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들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참 어색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일을 배워서 사수를 뛰어넘는 부사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진심입니다.

김상민 아직 일이 익숙지 않다 보니 긴급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선배님께서 침착하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든든합니다. 쇳물이 흘러가다 탕도가 굳어서 막힐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쇳물이 넘치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선배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처리하니까 다칠 위험도 없고 탕도도 깔끔하게 정리되더라고요. 그런 노련함과 침착함을 볼 때마다 옆에서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 입사해 지금은 호흡이 잘 맞는 후배와 일하고 있는 김상운 사원입니다.



**업무 외적으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공통 관심사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김상문 퇴근 후 조원들과 가지는 술자리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김상민 사원이 술을 워낙 잘 먹고 좋아하죠. (웃음) 저는 술을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그런 자리를 통해서 평소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둘 다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나누고요. 다녀온 곳 중에 어디가 좋았는지, 맛집은 어디인지 물어보면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답니다. 오는 5월에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녀와서 좋다고 하면 저도 가볼까 싶어요.

김상민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라, 입사 전에는 혼자서도 여행을 다니곤 했어요. 학생일 때는 돈이 없다 보니 거의 국내여행을 다녔는데, 이는 취직도 했으니 올해는 해외 여행을 가보려고요. (웃음)

김상문 여행을 좋아한다고 해서 둘이 따로 여행을 갈 계획은 전혀 없어요. (웃음) 대신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야유회가 있어요. 제주도에 간 적도 있고, 당일치기로 근교 나들이를 한 적도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야유회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민 사원과 함께 가는 첫 야유회니,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김상문 저희 공장은 조가 계속 바뀌는 시스템이다 보니, 언제까지 같이 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동안 안전하고 즐겁게 일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또 저와 조를 이룬 동안 많은 것을 배워서, 나중에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욕 먹지 않게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 청춘 어렵이 되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서 청춘을 즐겼으면 하고요. (웃음)

김상민 선배님 말씀대로 함께 일하는 동안 열심히 배워서, 누가 되지 않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어디를 가든 제 몫을 해내고 나중에는 선배님처럼 후배를 잘 이끌어 주는 사수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선배님도 저도 좋은 인연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김상문 형을 만난
상민이는
운수 좋은 놈입니다.^^

김상민! 나와 난
상호협력관계지? 잘 부탁한다. 그거 아니?
민들레의 꽃말이 감사의 마음이란걸.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자.

서로의
이름으로 전하는
삼행시 편지!



**배려하는 마음 속에
일에 대한 열정도
새록새록~**

SIMPAC 메탈로이 2공장 정려반 강홍우 사원 & 변상관 사원

무슨 일이든 첫 단추가 중요한 법이다. SIMPAC메탈로이 2공장에서 공정의 첫 단추를 맡고 있는 정려반. 그곳의 새내기인 변상관 사원에게 첫 사수가 그런 존재였다. 서투른 신입사원을 다그치기보다는 감싸주고 이끌어 준 강홍우 사원을 만난 덕에, SIMPAC인으로서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채웠다는 변상관 사원. 일에 대한 열정을 토양 삼아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두 포항 사나이, 강홍우 사원과 변상관 사원을 만났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홍우 SIMPAC메탈로이 2공장 정련Part에서 고무배합 및 믹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관 저는 강홍우 선배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변상관 사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SIMPAC 메탈로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최고의 사수와 부사수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강홍우 글썽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웃음) 저희 Part의 경우 각자 개인 업무가 있지만 동시에 팀원 간의 호흡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생산성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평소 대화를 많이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하며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변상관 사원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면을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변상관 강홍우 선배님은 물론이고, 정련반의 다른 선배님들과도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팀 자체의 분위기와 단합력이 워낙 좋아요.

사수와 부사수라고 해서 모두 각별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두 분이 지금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홍우 변상관 사원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저 친구는 우리 팀에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무 특성상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팀에 잘 따라주고 우직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변상관 사원이 딱 그랬어요. 팀에 잘 융화되면서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 사수와 부사수로 만난 관계이다 보니, 업무적으로 잘 맞을 때 더 가까워지고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변상관 처음 입사를 하면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렵잖아요. 헌데 강홍우 선배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고 친근하게 대해주며 제 긴장감을 덜어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님께 적극적으로 여쭙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짜증 한 번 없이 늘 잘 가르쳐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면서 금방 친해진 것 같아요. 또 업무 외적으로는 둘 다 축구를 좋아해서, 사내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공을 차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부사수가 생각하는 사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또 어떤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변상관 처음 일할 때는 잘 해야겠다는 욕심에 무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중량품을 마구잡이로 들곤 했는데, 선배님께서 '그렇게 하면 허리가 나간다'며 편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셨어요. 그 외에도 현장경험이 없어서 해매고 실수할 때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강홍우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그에 대해 강조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는 편이에요.

변상관 핸드카를 빼는 작업을 할 때, 힘 조절을 잘 못해서 오일이 바닥에 쏟아진 적도 있었어요. 그 때는 순간 식은땀이 나면서 속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웃음) 그런데 선배님께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는커녕 함께 치워주시면서 작업 노하우도 알려주셨어요. 강홍우 선배님 뿐 아니라 다른 선배님들도 실수를 하면 화내기보다는 웃으며 보듬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해 입사해 SIMPAC인의 모습을 갖추가고 있는 변상관 사원입니다.



정련Part에서 고무배합 및 믹싱 작업을 맡고 있는 강홍우 사원입니다.

강홍우 일을 하다 보면 실수는 당연히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정도의 실수는 바쁜 업무 중에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소소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수했다고 혼을 내면 더 긴장하게 돼서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일은 물론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만 바쁠수록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특히 저희는 공정의 첫 시작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공정이나 완제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고 신중하게 일해야 하거든요. 변상관 선배님 업무 스타일이 매우 깔끔하고 꼼꼼해요. 일을 빨리 하려다 보면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선배님은 중간 중간 주변정리를 하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할 때는 오히려 금방 끝나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외적으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강홍우 쉬는 시간에도 거의 업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웃음)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들을 나누곤 해요.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럴 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팀 워크가 더 끈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적인 잡담도 하죠 (웃음)

변상관 하루 업무가 끝난 후 저녁식사나 술자리 모임을 통해 회포를 풀 때가 있는데, 제가 술을 전혀 못해요. 선배님은 술은 잘 드시거든요 (웃음) 장단을 맞춰서 한 잔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죠. 사실 입사 후 1공장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점심식사 자리에서 사장님께서 술을 권하신 적이 있어요. 거절하지 못하고 세 잔을 마신 후에 오후 내내 공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웃음) 여기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어요. 사실 남자직원이 대부분이다 보니, 입사 전에는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어요. 실제로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헌데 저희 팀은 그렇게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없어서 좋습니다.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강홍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일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는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지금도 호흡이 잘 맞지만,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더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변상관 선배님 말씀대로 일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오랫동안 지금과 같은 관계로 지냈으면 합니다. 사람이 오래 알고 편해지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킬 것은 지키면서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서로의 이름으로 전하는 삼행시 편지!

강인한 마음으로
흥미롭게 일하며
우리 사수님의 멋진 부사수가 되겠습니다!

변하지 말고 지금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관계로 잘 지내보자!



차 한 잔 나누며 TALK TALK

SIMPAC그룹 3사 영업의 달인, 통합 브랜드 파워를 꿈꾸다!

사업 분야는 달라도 SIMPAC라는 이름으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이들이 있다. 바로 SIMPAC그룹 각 사의 영업 담당들. 제품에 대한 고객의 의견과 니즈를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노련함이 있기에 SIMPAC의 미래는 '언제나 믿음'이다. 바쁜 시간 쏙 개어 한 자리에 모인 SIMPAC, SIMPAC인더스트리, 그리고 SIMPAC산기의 영업맨들. 따로 또 같은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SIMPAC인더스트리에 이어 SIMPAC산기가 SIMPAC그룹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SIMPAC그룹의 계열사로 일하는 장점과 그로 인해 변화한 점은 무엇인가요?



SIMPAC산기 김명길 부장 : SIMPAC산기는 과거에 국내영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다가 7년 전부터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 로컬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타이어 생산과정 중 후공정 설비 제작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SIMPAC그룹의 일원으로서 타 계열사들과 업무나 시스템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이세원 과장 : SIMPAC이 SIMPAC그룹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지켜왔기 때문에 SIMPAC그룹 계열사로 일하는 장점이나 전반

적인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IMPAC인더스트리의 업무는 소재 쪽에 국한된 업무였는데 그룹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겠죠.



SIMPAC 고석지 과장 : 저도 기대가 큼니다. 특히 관련 기업을 확장하여 산업을 일으키는 데에 SIMPAC산기의 좋은 평판이 도움이 되리라 믿고요. SIMPAC산기는 전체 매출 규모에 반해 해외 매출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SIMPAC의 경우,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로 나아가고 있어서 SIMPAC산기의 글로벌 경험과 노하우가 연관 산업에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리라 예상하고 있어요.



SIMPAC인더스트리 이세원 과장 :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라인의 전 공정을 이제 SIMPAC

인더스트리가 직접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인 설계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룹화에 따른 장점이 아닐까요? 통합 브랜드로서 협력업체 및 고객에게 SIMPAC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다는 것도 또한 SIMPAC인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자동차 부품 관련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SIMPAC그룹을 알리는 좋은 기회이자 협업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만드는 계기는 물론, 그룹 위상에 걸맞게 대외적으로도 이미지를 개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죠.



SIMPAC 차희진 사원 : SIMPAC은 AS팀이 따로



참석자(사진 왼쪽부터)

SIMPAC 국내영업팀 고석지 과장, SIMPAC인더스트리 국내영업팀 유선용 사원, SIMPAC 국내영업팀 차희진 사원, SIMPAC산기 최준영 대표이사, SIMPAC산기 김명길 부장, SIMPAC인더스트리 해외영업팀 이세원 과장, SIMPAC인더스트리 국내영업팀 김용완 사원

구성되어 있어 자신 있게 AS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SIMPAC인터스트리와 SIMPAC산기까지 함께 하게 되었으니 SIMPAC의 파워풀한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만의 영업 노하우가 있나요?

SIMPAC산기 최준영 대표이사 : 이번 인도네시아 전시회에서 다른 회사들과의 차별점을 보여 주려고 했습니다. 해외 영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복을 입고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죠.

SIMPAC인터스트리 이세원 과장 :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처음에 SIMPAC산기 직원들을 봤을 때 작업복에 태극기 마크가 붙여져 있는 것이 무척 신선하고 인상적이었는데, 역시 해외 시장이 주무대인 SIMPAC산기 다운 전략이네요.

SIMPAC산기 최준영 대표이사 : 사실 SIMPAC그룹의 가족이 되고 SIMPAC산기를 잘 모르는 외부의 시선에 처음엔 힘들었어요. 중국 회사보다 못한 평가를 받기도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어필하고, 고객사가 우리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여 현장의 모습 그대로를 보고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며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AS를 진행했구요.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입니다.

SIMPAC인터스트리 이세원 과장 :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는 해외영업의 70%가 일본인데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자 단어가 '신의(信義)'예요. 중요한 것은 신의를 어떻게 보여주고 전달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영업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SIMPAC그룹 일원으로서의 성공적인 영업이란 어떤 모습인가요?

SIMPAC 고석지 과장 : 과거 심토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 반 동안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 고생이 지금은 경험이 되어 해외 전시회에 참여할 때 도움

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각 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융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와 태도로 접근한다면 분명히 그에 따른 훌륭한 시너지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SIMPAC산기 최준영 대표이사 : B2B의 특성상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전 공정을 패키지로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은 브랜드를 알리고 그 파워를 키우는데 분명 도움이 되겠죠. 그런 점이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SIMPAC인터스트리 이세원 과장 : 예전에는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잘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마인드가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변화가 이미 마케팅이 중요한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적절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성공적인 영업의 열쇠가 될 거라고 믿고요.

SIMPAC산기 최준영 대표이사 : 내부 인원들의 자신감과 넓어진 시야 등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중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인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SIMPAC 고석지 과장 : 고객한테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고객사에서 얼마나 애가 탔을까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둘째, 초기 AS 투입! 영업사원이 동시에 투입되어 직접 부품을 들고 뛰어가도록 해야 해요. 위급할 때 즉각 해결해주고 원하는 것을 필요한 타이밍에 정확히 제공한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SIMPAC인터스트리 유선용 사원 : 입사한 지 한 달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 힘든 걸 말할 위치는 아니네요. (웃음) 하지만 수주를 위해 고생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알게 됐고요. 토요일에도 쉬지 않고 땀 흘리시는 선배님들을 위해 하루 빨리 업무를 익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SIMPAC 차희진 사원 : 영업 사원은 수주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는 프레

스 영업을 시작한 지 일 년 밖에 안된 터라 선배님들 쫓아 다니기 바쁘긴 하지만요. 대신 많이 배우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제인가요?

SIMPAC 차희진 사원 : 지난 1월에 입사 후 첫 수주를 했는데 그 때가 가장 기쁘고 보람찼어요. 영업 사원에게는 역시 수주가 답인 것 같더라고요.

SIMPAC인터스트리 김용완 사원 : 기존 업체가 아닌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서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가장 뿌듯하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고객사가 처음에는 SIMPAC인터스트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가도 지속적인 노력 끝에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걸 확인할 때처럼요.

SIMPAC그룹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SIMPAC인터스트리 유선용 사원 :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IMPAC산기 김명길 부장 : 내부 고객에 대한 소통이 원활해야 외부 고객에 대한 소통도 잘 이뤄져서 더 좋은 품질을 실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IMPAC그룹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일류기업들에 해당되는 얘이기도 하고요.

SIMPAC산기 최준영 대표이사 : 고객사의 특성에 따라 영업 모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보다 자유로운 마인드를 갖춘다면 더 넓은 관계 형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IMPAC 고석지 과장 : 몇 년 전부터 SIMPAC 내부에서는 유연함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곧 융합을 위한 노력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SIMPAC인터스트리 김용완 사원 : 이제 고객의 가려운 곳을 바로 긁어줄 수 있는 윈스톰 쇼핑 체제를 갖췄으니 지금보다 더 큰 도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각 사별 2015년 목표가 있다면요?

SIMPAC산기 김명길 부장 : 작년 매출이 25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신규수주 기준 3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SIMPAC 고석지 과장 :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회사의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SIMPAC인터스트리 이세원 과장 : SIMPAC인터스트리는 해외시장이 주 거래처인데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해외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마음으로 말하고 신뢰로 일한다!

SIMPAC인더스트리 품질지원팀

제품이 생산되어 출하되는 장소에 따라 품질지원팀 인원은 각각 가좌1공장, 가좌2공장, 남동공장에 배치된다. 이렇듯 뿔뿔이 흩어져서 일하다 보니 한 팀이라고는 해도 한 달이면 밥 한끼 같이 먹는 날이 손에 꼽힌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팀원들이 한데 뭉쳤다. 김영민 대리, 김정인 대리, 김연식 사원, 김준영 사원, 이민복 사원, 박효범 사원, 이렇게 남자 6인이다. 좋다! 오늘은 품질지원팀 회식하는 날이다!

품질지원팀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김정인 대리:** 우리 회사는 남동공단에 주조주물 공장, 가좌동에 산업기계와 기계가공, 감속기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각 공장마다 제품의 특성이 다르고 필요한 품질지원팀 업무도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좌동 본사에 품질지원팀 본부를 두고 각 공장 특성에 맞춰 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을 겸비한 팀원 두 세 명씩을 파견합니다.
- 김영민 대리:** 품질보증을 위한 ISO 품질경영평가를 1996년 영국 로이드인증원으로 부터 인증 받아 연 2회 자체 내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품질 감사를 수검 받아 20년 동안 인증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죠.

우리 팀만의 강점이 있나요?

- 김연식 사원:** 일단 외모가 출중합니다. 모두들 어디 가서 외모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인물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하지만요. (웃음)
- 김영민 대리:** 잘생긴 외모 만큼이나 각 Part에서 기술적, 기능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쌓이면서 팀원 간의 믿음도 확고해졌어요. 선후배가 격의 없이 대화하며 서로를 통해 배우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술선수범하는 것. 이게 바로 품질지원팀의 강점이 아닐까요?

- 김정인 대리:** 겉으로 보기에는 말수도 적고 표현도 잘 하지 않는 무뚝뚝한 남자들이지만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팀워크이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야말로 저희 품질지원팀의 보이지 않는 강점입니다.
- 김준영 사원:** 엇그제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3차원 측정교육을 받았는데, 그동안 선배님들이 실무 업무를 대신 맡아주셨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려들이 항상 고맙고 같은 팀으로서 자랑스러워요.
- 김정인 대리:** 각 사업 분야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다 보니 팀원 모두가 산업기계, 감속기, 주조, 가공 등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것도 품질지원팀만의 강점이라 할 수 있어요. 팀 내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에서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업무 중 가장 힘든 순간과 보람찬 순간은 언제인가요?

- 김연식 사원:** 아무래도 불량 건으로 고객을 만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또, 사업장 별로 나뉘어서 일하다 보니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요.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열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더 도와주려 하고, 더 잘 하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힘든 순간을 잊게 하는 힘이 되곤 합니다.
- 김영민 대리:** 가장 보람찬 순간은 제품이 문제 없이 고객한테 전달됐을 때입니다. 물건이 출하되고 3개월 정도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때까지 소식이 없으면 제품이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긴 거고요. 정말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죠.
- 김준영 사원:** 재미있는 일도 종종 있어요. 생산팀과 함께 점검 차 해외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카본 때문에 모두들 얼굴이 새까만 채로 호텔에 돌아왔어요. 근데 새까만 얼굴만 신경 쓰다가 정작 발바닥이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던 것은 눈치채지 못하고 호텔 룸의 카펫에 까만 발자국 도장을 여기저기 찍어 놓은 거예요. 다들 너무 열심히 일한 거라며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자리를 빌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세요.

- 김연식 사원:**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저를 언제나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김정인 대리가 참 고맙습니다.
- 김정인 대리:** 제가 본사에 있다가 주조 부서로 왔는데 그때 김영민 대리님이 제 업무까지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힘들다는 말 한 마디 안 하셨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
겉으로 보기에는 말수도 적고
표현도 잘 하지 않는 무뚝뚝한
남자들이지만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팀워크이고요.
||



김영민 대리 : 김준영 사원은 집이 제일 멀어서 출퇴근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지각 없이 출근하고 있어서 대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함께 더 열심히 일하고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김준영 사원을 보면서 '우리 준영이가 참 착한 친구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효범 사원 : 김정인 대리는 입사 시기도 비슷하고 예전에 본사에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더 편하기도 한데요,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속 그만 썩이고요. (웃음)

이민복 사원 : 일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김영민 대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무 업무를 하면서 현장 업무까지 거들어주시니 제가 덕분에 편해진 부분도 있어요.

김준영 사원 : 팀에서 막내인 박효범 사원 다음으로 제가 어렵니다.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많이 얘기하며 도움을 주곤 해요. 한 살 차이 이다 보니 더 편하고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고맙다, 효범아!



2015년 품질지원팀의 한 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김정인 대리 : 먼저 내부의 절차, 지침을 재정비하고 품질회의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보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검사 수준을 강화하여 품질 기준도 강화하고요, 또, 사내에서 발생하는 품질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여 원가 절감을 실시하기 위해 생산부서에 시정 및 예방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SIMPAC패밀리

다른 듯 닮은 우린 '아버지와 아들'

"3대가 모두 SIMPAC과 함께입니다!"

SIMPAC 품질지원팀 김종석 계장과 조립2반 김철수 사원

1986년 3월, SIMPAC에 입사하여 내년에 정년을 앞두고 있는 품질지원팀 김종석 계장. 그리고 2014년 4월에 입사한 새내기 김철수 사원. 이들은 매일 아침 한 지붕 아래 한술밥을 먹는 가족이다. 외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SIMPAC에 몸담은 진정한 SIMPAC 패밀리로 현재 근무 중인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만나봤다.

아버지,
오늘 몇 시에
퇴근하세요?

너그러운 아버지에서 간간한 직장 선배로

아침 5시, 알람이 울린다. 반사적으로 알람을 끄고 자던 잠을 계속 청하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일어나! 지각한다!", "일어나."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아들.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는 그를 보며 아버지는 마음이 쓰인다. '회사 가서 잘 하려나.' 장성한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돌봐줘야 할 어린이 이처럼 느껴진다. 특히 같은 직장에 다니는 신참내기 신입사원이면 더욱 그렇다.

30년 째 근속 중인 품질지원팀 김종석 계장과 신입사원인 조립2반 김철수 사원은 대를 이어 SIMPAC인으로 일하고 있는, 글자 그대로의 SIMPAC패밀리다. 1986년에 입사하여 18년간 생산Part에서 일하고, 이후 품질지원팀에서 제품 검사업무를 맡아 온 김종석 계장은 꼼꼼하고 책임감 강하기로 소문난 우수 직원이자 SIMPAC의 살아있는 역사다. 아들 김철수 사원은 작년에 입사하여 배관업무는 물론 조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열혈 신입사원. 이들이 부자지간이라는 것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더욱 행동이 조심스러워진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 가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30년 직장생활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늘 긴장하게 된다. 집에서는 한없이 편하고 너그러운 아버지이지만 회사에서만은 간간한 직장 선배일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이유 탓이다.

외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모두 SIMPAC인

김철수 사원은 올해 스물 두 살로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참 놀고 싶은 나이이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SIMPAC에 입사지원서를 넣겠다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는 무척 대견스러웠다. 여러계만 생각했던 아들이 어느새 당당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사회인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고 한다. 김종석 계장의 장인어른 역시 SIMPAC에서 근무하셨던 만큼 아들까지 SIMPAC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내심 자랑스럽기도 했다. 3대가 SIMPAC의 역사를 함께 한다는 건 분명 명예로운 일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사실 김철수 사원은 아버지가 SIMPAC에 근무한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SIMPAC의 입사지원서를 가족들에게 내밀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이 바로 그 SIMPAC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공사다망한 젊은이들이란 원래 그렇게 무심하고 뜬금없는

우리 아들
퇴근할 때!





법인가 보다. 그래도 고심 끝에 선택한 회사가 외할아버지가 일했던 곳이자 아버지가 30년을 몸 바쳐온 바로 그 회사인 걸 보면 누가 봐도 SIMPAC과의 인연이 보통은 아닌 듯 싶다.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도 3대가 SIMPAC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에 기뻐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그만큼 책임감을 느껴 부담이 컸다. 그런 서로를 잘 알기에 각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고 한다.

"나는 오늘 아침,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보통 김중석 계장과 김철수 사원은 함께 출근한다. 그런데 한 번은 김철수 사원이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공장 회사로 출근하는 날, 그만 늦잠을 자서 지각한 적이 있다. 살얼음을 걷듯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하고 있던 중 김중석 계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너 지각했다며!" 아버지의 호통이었다. 놀란 김철수 사원은 우물쭈물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지만 등줄기가 오싹하고 식은 땀이 흘렀다.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아버지한테 그새 지각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는 회사의 누군가가 험레벌떡 출근하는 김철수 사원을 보고 장난스러운 마음에 그 소식을 전한 것이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 아버지나 아들이나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평소 활발하고 집에서는 막내로 애교도 있는 편인 김철수 사원은 회사에서만 큼은 점잖고 의젓한 성격이다. 그가 회사생활 중 가장 힘들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제가 원래 굉장히 활발하고 거침없는 성격인데요. 회사에서 만큼은 그런 제 모습을 자제해야 해서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아버지 체면이나 입장도 고려해야 하니 더욱 신중해 지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은근슬쩍 자식 자랑을 보탠다. 막내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딸 못지 않게 살가운 면이 있어서 그 덕에 부자간의 대화가 많은 편이라고. 김중석 계장의 이야기에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는 김철수 사원. 사실 그는 아직 장난기가 엮보이는 눈빛과 짧은 바짓단, 그리고 멋스럽게 올려 세운 앞머리가 말해주듯 개성 강하고 혈기왕성한 스물 두 살의 청년이다. 그런 김철수 사원이 집에서는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일지라도 밖에서 흑시 남들에게 흠 잡힐만한 건 없는지 아버지는 같은 직장에 있는 아들에게 더욱 엄격해진다. 하지만 가까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다고. "아버지로서 늘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보이는 곳에서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는 것보다야 이 편이 훨씬 낫죠."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걱정해야죠"

김중석 계장은 내년이면 30년 몸담은 SIMPAC을 떠나게 된다. 말이 30년이지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이곳에 담겨있는 셈이다. SIMPAC에 와서 첫 월급을 받았고,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다시 SIMPAC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가 평생을 매일같이 출근한 이곳을 떠나게 될 때 그 허전한 마음이야 이루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아들이 앞으로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덜 아쉬울 듯 하다. 내년을 생각하면 김철수 사원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쉬면 아프다고들 하잖아요. 평생 고된 일을 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일을 손에서 놓고 건강이라도 안 좋아지면 어쩌나 걱정이예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 걱정을 할 때가 됐나 봐요." 의젓한 막내 아들의 대답에 아버지는 애써 태연한 척 한다. 부모는 자식 모르게 늙어 나이가 들고 자식은 부모 모르게 철이 드나 보다. 그러다 문득문득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며 세월의 흐름에 놀라게 되는 것이 어느 가족이나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김중석 계장과 김철수 사원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대화도 많아졌다. 평소에도 여는 부자기간 보다는 편하게 나누는 편인데 아들이 SIMPAC에 입사한 이후에는 그 시간이 더욱 많아졌다. 업무 얘기도 하고 사회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같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은 공감대를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도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부자기간. 무뚝뚝함을 감출 수는 없다. 가족 사진을 찍는 날에 아들은 친구랑 함께 있는 시간을 택했고, 아직 부자간에 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으며, 취미생활은 전적으로 개인의 영역이지 부자가 함께 오순도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 보겠다고 아들이 말한다. "내년에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나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지주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운동을 하든 등산을 하든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해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가 되어주길!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지"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김철수 사원도 가끔 김중석 계장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듣는다. "우리 때는 주말이 다 뭐야. 주말에 일하는 건 물론이고 평일에도 집에 가서 잠깐 눈만 붙이고 출근하기 일수였는데.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했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가 가능한 거야. 쉽게 이루는 게 세상에 어디 있나." 예전 같으면 아버지의 그런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테지만, 요즘 아들은 조금 다르다. 사회인으로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신입사원이기에 아버지의 말이 이제 넋두리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다. 물론 가끔씩은 잔소리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가볍지만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회사에 와서 보니 아버지가 보낸 고된 삶의 흔적이 조금이나마 상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아들에게 직장 상사로서, 인생 선배로서 아버지는 진심 어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인사 잘하고, 선후배 잘 챙기고, 힘들더라도 항상 밝은 얼굴로 일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일하라는 말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김철수 사원도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속마음을 내비쳤다.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다치지 마시고 특히 더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위치에서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게요."

끝으로 아들이 농담처럼 한 마디 덧붙였다. "아버지,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정해진 시간대로 일이 안되면 울그락 뚱그락 하시는 것도 이제 좀 그만하시고 느긋하게 지내는 생활도 즐겨 보세요. 너무 칼 같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도 힘들었던 거 아시죠?"(웃음)



기획 칼럼

1분을 쉬어도 알차게 쉬고 싶은 당신을 위하여

- 생산적인 여가 활용법



열심히 일한 당신, 제대로 잘 쉬고 계신가요? 지금은 휴식도 없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좀 더 똑똑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제대로 휴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마커스 라이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있다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독일의 휴식 전문가 울리히 슈나벨은 '휴식이란 밀도 있는 한가로운 순간'이라고 정의했죠. 휴식은 단지 놀거나,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닙니다. 휴식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퇴근 후나, 주말의 여가에 생산적 휴식을 얼마나 잘 취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업무의 효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_자유기고가 배나영

왜 우리는 여가를 활용하기 힘든 걸까?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가 활용이 힘든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약 40%의 직장인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고, 그다음 30%는 돈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선택했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10명 중 4명이 휴식이라고 대답했고, 주된 여가활동으로는 수면과 휴식, 게임이 제일 많았습니다. 직장인들이 짧은 여가 동안 휴식과 수면을 선호하는 경향은 여가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가 활동에도 학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여가 활동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여가를 활용해야

정신의학계의 권위자이자 파워시니어인 이시형 박사는 30대와 40대를 조금 더 현명하게 보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30대에 자리를 잡으면 그 때부터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이시형 박사는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늦어도 40대 후반부터 최소한 10년 정도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하기 10년 전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인생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퇴근 후에 친구들을 만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던가, 주말이면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뒹굴거리는 시간을 조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배우고 싶던 악기를 선택해 짬짬이 연습하면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요리나 뜨개질로 선물하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퇴근 후 2시간 : 자기계발형 여가

여가는 무의미하고 한가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학습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즉, 시간을 활용하여 알차고 보람된 삶을 가꾸기 위한 것이죠. 주말에만 여가를 즐기란 법은 없습니다. 매일 퇴근 후 2시간, 혹은 출퇴근 중 2시간은 굉장한 골든타임입니다. 하루 2시간씩 5일이면 10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하루의 업무시간을 보통 8시간이라고 할 때, 10시간은 거의 하루의 업무시간과 맞먹는 엄청난 시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고,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기본 2시간은 TV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흘러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10시간이 넘지는 않나요?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앞으로의 내 삶이 달라질까 고민해 보세요. 누군가 게임에 빠져있는 동안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 음주를 즐기는 동안 누군가는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지금은 똑같은 직장인으로 보이지만 10년 후에 사뭇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추천! 여가활용법>
관심 분야의 책 읽기, 인문학 공부, 어학공부, 자격증 공부, 동호회 활동, 온라인 공개강의 듣기 등

독서는 자기계발을 위해 시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서를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스토리가 가미된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문학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죠? 문학, 철학, 역사와 관련된 인문학의 세계에 입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학공부는 혼자 해도 좋지만, 가까운 학원을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자격증 공부를 틈틈이 해두거나, 공부하는 직장인을 위한 온라인 공개수업(MOOC)을 찾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나를 만난다면 공부도 더욱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재충전하기

여가는 직장 업무에서 벗어나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일에 개인이 자유롭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균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말과 휴가, 퇴근 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 일을 즐기는 과정에서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봅시다.

(1) 조용히 내 안의 나를 마주하는 시간 : 에코형 여가, 휴식형 여가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조용하게 쉴 수 있는 휴식형 여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시끌벅적하게 친구들과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저녁도 있지만, 가끔은 나만의 취미에 몰입하거나, 진정한 휴식을 즐기고 싶은 때가 있는 법이죠. 그렇다고 주말 내내 누워서 TV 프로그램을 섭렵하고, 낮잠을 즐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정한 휴식은 휴식을 취한 후 정신이 맑아지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주일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주고 활력을 불어넣는 휴식을 취해봅시다.

<추천! 여가활용법>
그림 그리기, 민화 그리기, 캘리그래피, POP배우기, 서예, 화분 가꾸기, 꽃꽂이, 향초 만들기, 천연화장품 만들기, 요리, 악기 연주, 뜨개질, 페이퍼아트 등

나만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고, 그림일기를 써도 좋겠죠. 캘리그래피나 POP를 배우고 연습해서 전문가 못지 않은 근사한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싱그러운 화초를 가꾸거나 화려한 꽃꽂이를 하며 자연을 벗삼아 원기를 충전할 수도



(3) 온몸으로 즐기며 스트레스를 날리는 활기찬 시간 : 야외활동형 여가, 일상 스포츠형 여가

몸을 움직이면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조금 울적한 날에는 집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보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편이 더 좋다고 해요. 몸을 움직이고 나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요. 과학전문 뉴스사이트 라이브 사이언스는 평생 동안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추천합니다.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은 두뇌의 장기적인 건강을 돕는다고 합니다. 미국 오리건 대학교 운동과학부에서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하면 잠을 훨씬 잘자고, 낮에 조는 일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추천! 여가활용법>
요가, 헬스, 댄스스포츠, 마라톤, 트래킹, 등산, 자전거, 수영, 여행, 캠핑, 산책, 주말농장 등

아침에 스트레칭만 잘 해도 근육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라면 요가를, 남성들은 헬스를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헬스장에서의 실내운동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몸의 리듬감을 깨우는 댄스스포츠나 야외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리는 마라톤을 해보세요. 한국인이 선호하는 취미 1위인 등산은 다이어트와 힐링, 2가지 효과가 있어 인기가 있습니다. 등산보다 가볍게 걷고 싶다면 트래킹,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꾸준하면 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한다면 주말 여행이나 캠핑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인라인, 테니스와 같이 평소에 관심 있던 스포츠에도 도전해 꾸준히 실력을 쌓아 봅시다.

(4) 새로운 도전을 부르는 특별한 시간 : 고난도 고만족도형 여가, 전문 스포츠형 여가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 후 여가의 수준과 질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 여가란 일과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가의 질이 높아질수록 업무의 생산성과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죠. 특히 신체활동의 정도를 높일 수록 직무만족도 역시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TV 시청과 같이 소극적이고 정적인 여가활동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노력을 요하는 여가활동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활동일수록 몰입도가 높고, 따라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스키장 상급자 코스에서 타는 사람이 초급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신체활동의 난도가 조금 높더라도, 나만의 특별한 취미를 개발해 몰입한다면 삶의 전체적인 만족도도 함께 높아지겠죠?

<추천! 여가활용법>
스쿠버다이빙, 요트, 승마, 스포츠 클라이밍, 레이싱 카트, ATV, 패러글라이딩, 클레이 사격, 봉사활동 등

스쿠버다이빙은 해외나 먼 지방의 바다로 나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실내 수영장에서 기초적인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럭셔리한 스포츠라고만 생각했던 요트를 저렴한 가격에 배울 수 있는 곳도 한강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을 좋아한다면 승마나 폴로를 배워볼 수도 있고, 맘 흘리는 쾌감을 좋아한다면 스포츠 클라이밍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죠. 스피드를 즐긴다면 레이싱 카트를,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리고 싶다면 ATV를 타보세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원한 경치를 만끽하고 싶다면 패러글라이딩이나 경비행기 조종은 어떨까요. 익스트림한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클레이 사격이나 양궁, 국궁 등을 배우며 집중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놀고 즐기는 것 외에도 사회성 여가 활동인 봉사에 참여하면 만족도가 무척 높은 여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다

SIMPAC홀딩스 전략구매실 및 SIMPAC 임직원 워크숍 현장

지난 1월 23일과 24일, 아직은 겨울의 찬 바람이 부는 포항의 SIMPAC메탈로이 사옥에서 SIMPAC그룹의 구매담당 인력들이 모여 2015년 시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통합구매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과 SIMPAC홀딩스 전략구매실 직원들, SIMPAC 임직원(이승중 전무 外 16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1박 2일의 일정 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SIMPAC그룹 화이팅!"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포항 바닷가 앞에서
기념 사진 한 컷

공장 투어 - "우리 제품이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직접 보고 듣는 SIMPAC메탈로이 생산 현장



워크숍 -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시황 점검 및 통합구매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공유의 시간



식사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워크숍을 끝난 뒤 한 자리에 모여 기분 좋은 점심 식사





SIMPAC 가족이 되어 날개를 활짝 펼치다!

SIMPAC그룹 신규입사자 역량강화 과정을 마친 7인의 이야기

지난 4월 15일-18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횡성에서 'SIMPAC그룹 신규입사자 역량강화 과정'이 열렸다. 새롭게 SIMPAC의 가족이 된 30명의 신입 사원들이 모여 각기 다른 개성으로 자신의 매력을 뽐내며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서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SIMPAC홀딩스 5명, SIMPAC 24명, SIMPAC인더스트리 1명으로 이뤄진 이번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동료들과의 협동심을 키우고 SIMPAC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나갈 것인지 다 시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각 사 참가자들의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7인을 선발해 몇 가지를 물어보았다.

7인에게 물었습니다

- 1 SIMPAC인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2 일을 배우고 적응하면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나요?
- 3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 4 선배들에게 가장 배우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 5 앞으로 어떤 모습의 SIMPAC인이 되고 싶으신지 포부를 밝혀주세요.
- 6 전체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언제였나요?



SIMPAC홀딩스 전략구매실 이희준

- 1 제 특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업무가 무역이라 생각해 수입업무를 주로 하는 구매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현재 합금철 원자재 구매 업무를 맡고 있고요.
- 2 이론으로 배운 내용과 실무에서 느끼는 차이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 3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제가 처리한 업무가 팀에 도움이 되고 성과가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1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대단한 일이라는 걸 선배님들을 보며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몇 년 뒤에는 대내외적으로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 나만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5년은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습득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 6 조원들이 힘을 모았던 과정들이 다 기억에 남아요. '인도어 로잉'의 경우 개인전을 할 때는 저희 조가 특출난 성적을 거두지 못하다가 단체전에선 거의 1등에 가까웠죠, '타임 헌터'도 불가능한 것 같아 포기하고 싶었는데 결국 해냈고요. 앞으로 일을 하면서 더 어려운 과제들이 생길 텐데 제 옆엔 동료들이 있으니 협력해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IMPAC 수주설계팀 장재현 사원

- 1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이는 부평의 SIMPAC 사옥을 보면서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프레스라는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고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라 제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어 지원하게 됐고요.
- 2 군대 전역 후 바로 입사한 터라 전공에 대한 공백과 실무 지식 부족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셔서 이제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 3 간단한 단품이었지만 처음으로 설계한 도면에 제 사인이 올라갔을 때

입니다. 제 도면에 맞춰 프레스가 제작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설계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들었습니다.

4 선배님들처럼 꼼꼼한 성격이 되고 싶어요. 설계를 위한 지식과 노하우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회사에서 필요한 대인관계나 유관 부서와의 소통 노하우도 배웠으면 합니다.

5 혼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열심히 배우고 성실하게 일해서 SIMPAC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6 타임 헌터입니다. 15명의 조원들이 210초 안에 6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노력해 5차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조원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도전정신과 팀 워크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SIMPAC 생산2팀 양태수 사원

- 1 대학 시절 현대제조공학을 배우며 프레스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SIMPAC에 입사 지원했는데 탈락한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실패라기보단 꿈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지원 당시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꿈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2 보람이나 선반 등의 설비에 대해 이론은 배웠지만 실제 다뤄 본 경험이 없어 힘들었습니다. 또 프레스 부품을 가공하는 순서나 필요한 공구, 명칭 등이 생소해 어려웠고요. 하지만 작업자분들, 선배님들에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무척 크답니다.
- 3 입사한 지 약 5개월 째 돼가는데, 작업자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조금이나마 제가 해결할 수 있을 때 보람칩니다.
- 4 사회생활이 처음이다 보니 회사에 잘 적응하기 위한 노하우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관리자로서 작업의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야 함에도 불평불만 없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선배님들의 자세를 닮고자 합니다.



- 5 첫째, 제가 맡은 가공관리는 정말 많이 배워야 함을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작업자분들과 선배님들께 적극적으로 여쭙고 배우겠습니다. 둘째, 업무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6 '타임 헌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4명의 조원이 원 안에서 균형을 유지해

야 하는 '팀 밸런스' 미션이 어려워 포기할까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쉬는 시간에도 연습을 계속한 결과, 실제로는 한 번에 성공해 저희 조가 우승했습니다. 모든 미션을 완료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왔을 때 조원들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만끽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네요. 화합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SIMPAC 경영지원팀(전산) 이해원

❶ 취업 사이트를 통해 SIMPAC이란 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프레스 분야 최고의 제조업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겠다 싶어 입사 지원했구요.

❷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시스템 개발 업무는 각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사용자들과 협의하여 표준화해야 했기에 쉽지 않았습니니다.

❸ 과정이 어렵지만 제가 설계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임직원들이 사용할 때에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❹ 전산에서 가장 필요한 소양인 철두철미함을 선배님들로부터 배우고 싶어요. 전산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예측하여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체크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❺ 전산Part는 다른 부서에서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그 자부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해 SIMPAC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❻ DISC 검사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미 알고 있던 사이의 조원들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성향, 또 세 성향을 함께 알아보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도 검사 결과를 임무 배분에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덕분에 조원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협의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전산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SIMPAC 경영지원팀 권경택

❶ 어려서부터 기계에 관심을 갖다가 우연치 않게 자동차 생산 일을 하게 됐는데 저로 인해 하나의 기계가 탄생하는 과정에 보람을 느껴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니던 대학 가까이 SIMPAC이라는 좋은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입사 지원했구요.

❷ 처음 접하는 일이라 미숙한 상태에서 일을 맡아 선배님들께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할 때 부담이 되고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❸ 속도는 조금 더더도 스스로 해낼 때 보람을 느낍니다.

❹ 모든 일을 자신 있게 처리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실력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배워 그 모습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❺ 2015년의 저는 좀 더 일을 열심히 배워 다음 기수에 들어 오는 후배들에게 지금 선배들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지식들을 알려주며 서로 돕고 협력해 SIMPAC의 발전에 일조하겠습니다.



SIMPAC 경영지원팀 김 원

❶ 자동차 관련 산업에 관심이 많아 예전부터 SIMPAC을 알고 있었어요. No.1 프레스 제조업체로 자동차, 전자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제 미래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란 확신이 들어 입사 지원했죠.

❷ 모든 것이 처음이라 자잘한 실수들로 힘들 때가 있지만 조금이나마 저의 노력이 담긴 제품이 출고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❸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모든 걸 배우고 싶습니다. 프레스 종류, 원리, 기술과 노하우까지 지금의 SIMPAC이 되기까지 선배님들이 노력하신 만큼 저도 모든 것을 배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❹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노력하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흡수하고 알아가야 하는 스펀지 같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최고가 되기 위한 밑거름을 다지는 시기가 됐으면 합니다.

❺ 야간 산행이 기억에 남네요. 경사가 높은 길도, 미끄러운 길도 있어 고된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수많은 별들을 보며 동기들과 끌어주고 밀어주며 의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남인호

❶ 전문성을 갖춘 인사담당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인사총무 직무를 선택하게 됐죠.

❷ 저마다 개성이 있는 직원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헤아리는 역량을 길러야겠습니다.

❸ 아직 미흡이지만 가정과 회사, 두 개의 소중한 부분들을 균형 있고 현명하게 저울질하는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❹ 애사심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애사심은 책임감을 수반하고, 책임감은 전문성을 불러오니까요. 2015년은 스스로를 SIMPAC인으로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해가 될 것 같아요.

❺ 생각보다 교육 일정이 고단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잠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죠. 하지만 나 자신과 동료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라 모든 시간이 즐거웠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들이 반가웠습니다.



Highlights of SIMPAC OJT

SIMPAC그룹 신규입사자 역량강화 과정

3박 4일 중 둘째 날, 현장의 이모저모

[1st 인도어 로잉] - 하나 둘! 하나 둘! 구령에 맞춰 힘차게 노를 젓는다



[2nd 타임 헌터] - 짹짹, 미션 완료를 위해서는 협동심이 필수!



WHAT'S THE BEST?

철강 산업에 있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 소재

SIMPAC메탈로이의 합금철

글_SIMPAC메탈로이 품질·기술개발팀 팀장 최재우

국내 최초의 자부심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키우는 SIMPAC메탈로이

SIMPAC메탈로이는 1959년 국내 최초 합금철을 개발 및 생산한 (구)한합산업으로 출발하여 2006년에 SIMPAC그룹에 합류, 현재에 이르기까지 50년 이상의 생산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분야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특히 2008년에는 코스닥 상장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품질 및 생산성, 노사화합의 기업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건전성을 인정받으며 합금철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합금철(Ferro Alloy, 페로 알로이)이란?

철강 제련과정에서 용탕(금속이 녹는 쇳물)의 황 성분 등 철강 및 주물 제조 시 생기는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철 이외의 성분 원소 첨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철합금을 말한다. 합금이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섞여 이뤄진 금속을 뜻하며, 철성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합금철이라 칭한다.

▶합금철은 조강생산에 들어가는 필수 부원료

철강제조에 순철을 사용하지 않고, 합금철을 사용하는 이유는 순금속은 가격이 높은 반면, 합금철은 용융점(Melting Point)이 낮아 저온에서 쉽게 녹고, 용탕에 균일하게 분포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합금철 중에서도 SIMPAC메탈로이가 생산하는 망간계(Mn) 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낼 뿐만 아니라 망간의 유용한 특성을 제공한다.

▶망간(Mn)은 철강 산업의 비타민

망간은 철을 보다 단단하게 만드는 성질과 함께 진공과 소음을 줄이는 제진(制震)성을 갖고 있으며, 합금강은 강도와 연성이 우수해 자동차, 선박용 강판을 만드는데 사용될 정도의 고급 제품으로서 철강 제조 시에는 망간 합금철이 주로 사용된다.

망간(Mn)을 첨가하여 단단하고 잘 녹슬지 않는 강철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초였으며 현재 망간(Mn)의 90% 이상은 철강 산업에서 합금 형태로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망간(Mn) Steel Domain 창출을 통한 Initiative 확보로 고객 니즈에 맞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첨가 소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SIMPAC메탈로이에서 생산하는 주요 합금철 Fe-Mn (페로망간) / Si-Mn (실리콘망간)

망간계 합금철은 조강(쇳물) 1톤 생산에 20kg이 투입되는 필수 부원료로 철강 생산이라는 확실한 수요처가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최종 철강제품의 품질 차이는 원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철강사 입장에서는 양질의 합금철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Si-Mn(Silico Manganese, 실리콘 망간)은 금속 5대 성분 중 Fe 외 Mn, Si 성분이 상당히 높게 포함되어 있으면서 탄소함량이 낮아 전기로 제강사들이 선호하는 인기 제품이자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산소와 황 제거는 물론 실리콘 및 망간 성분 첨가를 위해 사용되어 제철회사에서 스테인레스강 및 봉강이나 형강을 만들 때와 철근 생산 시 주로 사용되어 건축자재(아파트, 빌딩 등)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수요자에 맞게 생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망간계 합금철 중 상대적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합금철 생산 트렌드가 Si-Mn(실리콘망간)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SIMPAC메탈로이 합금철 제조 공정

SIMPAC메탈로이의 합금철 제조는 크게 6단계 공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공정은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인 망간(Mn)광석, 코크스, 규석 등 원료를 반입, 전기아크로 장입에 용이한 입도로 입고한 후 건조장 및 야적장에 원료 탱크 이송 전 보관 관리하며, 각각의 원료를 개별 보관 탱크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송 보관 관리한다. 두 번째 공정은 계량 및 배합으로 고객이 원하는 품목에 맞추어 세계 제일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Material Balance를 구성하여 정확한 계량 및 배합조건에 따라 Mixing한 후 전기아크로 내 장입하여 원활히 용해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공정으로 전기아크로 속 Mixing된 원료에 연료인 전기를 투입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용탕 상태로 용융(용해)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네 번째 공정으로는 전기아크로에서 용융(용해)된 용탕(쇳물)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Metal(제품) 및 Slag(부산물) 출탕 또는 래들 수탕 과정을 거쳐 1000℃ 이상의 용탕(쇳물)로 받아낸다.

다섯 번째 공정으로 주전기 주형 및 냉각 과정으로서 액체 상태인 Metal(제품)을 일정 틀에 고형화 형태로 회수하거나 래들 등에 수탕된 Metal(제품)을 주전기에 틸팅하는 방법으로 고형화 형태로 냉각 과정을 거친 후 상품화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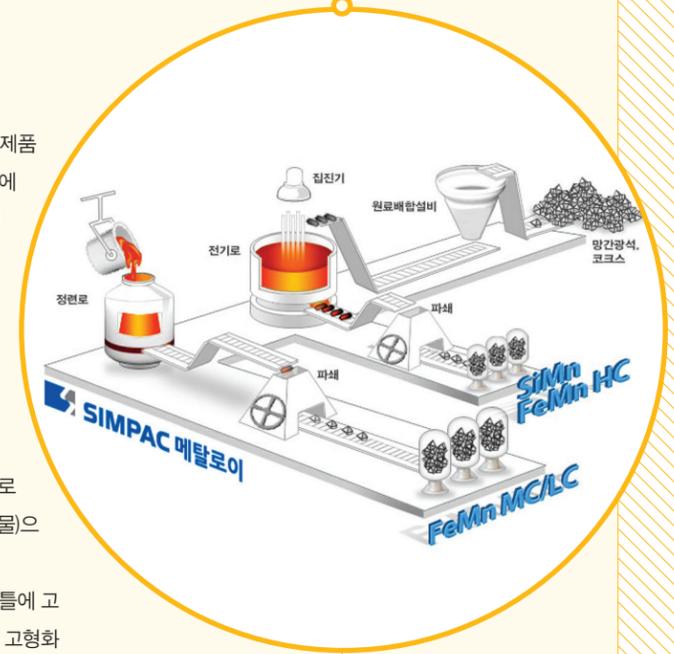
이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Refined(정련)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베셀에 수탕한 후 고압개스를 주입하여 Refined(정련)를 시행한 후 Metal(제품) 및 Slag(부산물)을 분리하여 역시 주전기에 틸팅하는 방법으로 상기 냉각 과정을 거쳐 고형화 형태로 상품화 되도록 한다. 마지막 공정으로 최종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Size별로 파쇄 및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화한다.

산업 시장 분석에 따른 고객 니즈 반영을 통해 고품질 합금철 생산

철강 업체들은 철강 소재의 고강도화, 고기능화 및 새로운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SIMPAC메탈로이 합금철 사업부는 고품질의 망간(Mn)합금철을 생산하여 철강 소재의 고강도화 및 높은 내식성, 도장성, 자기 특성 등을 부가한 고기능화 제품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높은 해외의존도 및 부품소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해 수급 불안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 철강 소재의 국산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Refined(정련)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해소함으로써 철강 산업 선순환 구조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설립 50주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SIMPAC그룹

음식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인 소금처럼 철강 생산의 필수 소재, 합금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생산한 SIMPAC메탈로이 합금철 사업부는 고부가 제품 라인 확보를 통한 Product mix로 시장 및 제품 차별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황을 앞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대표 중합 합금철 메이커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SIMPAC그룹은 이제 지난 50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지속성장의 시대로 나아가며 지난 세월 축적해 온 탁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 다가를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단기적인 시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산업 전반을 통찰하는 기업으로서 SIMPAC메탈로이는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언제나 최고의 모습을 이뤄내며 도전과 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SIMPAC NEWS

SIMPAC

R&D 부문 워크숍 실시

2월 27일~28일 양일 간 양평 블루비스타에서 SIMPAC의 R&D 부문 및 생산부문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SIMPAC이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SIMPAC이 나아갈 방향 등을 상호 토론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SIMPAC
메탈로이

포항시 모범납세기업 표창 수상



3월 30일, SIMPAC메탈로이 강당에서 포항시 모범납세기업 표창 수상식이 있었다. 포항시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지방세 세무지도 및 조사를 실시한 관내 415개 법인 중 지방세 납부실적, 추정세액, 종업원 고용, 체납여부 등으로 고려하여 모범납세기업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기업은 향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혜택도 받게 된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모범적인 기업활동과 납세활동에 앞장서는 SIMPAC메탈로이와 같은 회사들에게 향후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송효석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회사를 발전시킴으로써 고용창출과 함께 더 많은 지방세 납부를 실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새로운 혁신활동의 시작, QSS 4기 Kick-off



4월 3일, 좋은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진행 중인 QSS 활동의 4기 kick-off가 있었다. 이날 행사장에 모인 SIMPAC메탈로이 임직원 일동은 안전한 일터, 효율적인 일터, 깨끗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안전맹세를 통해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다짐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송효석 대표이사는 특히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직원들에게 당부했으며, 전 세계에 불어 닥친 불황의 폭풍을 혁신활동을 통해 극복하자는 강한 의지도 다졌다.

봄에 나누는 따뜻한 밥 한끼, 무료급식 봉사활동

첫 번째 이야기 - 법에서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3월 17일 SIMPAC메탈로이 봉사단 심봉사 회원들은 포항위기거정지원센터 무료급식소를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급식봉사를 하였으며, 쌀 400kg을 후원했다. 포항위기거정지원센터 무료급식소는 새터민, 노숙인,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곳이다. 이곳은 다른 무료급식소와는

달리 정부지원 없이 이뤄지는 곳이다.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노숙인이라 정부지원 기준이 없어 어렵게 운영된다고 한다. 수년 동안 어렵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은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지가 더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SIMPAC메탈로이 봉사단 심봉사는 앞으로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더욱 봉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두 번째 이야기 - 사랑 담은 행복한 밥상



대한적십자사, KBS포항방송국,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이 협업하여 준비한 '2015년 사랑 담은 행복한 밥상' 프로젝트에 4월 한 달 간 SIMPAC메탈로이 임직원이 참여하여 매주 월요일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봉사를 진행했다. 적십자 봉사회 어머니들은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들고, SIMPAC메탈로이 임직원들은 배식과 식판 전달, 설거지, 뒷정리 등을 하였다.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일요일 저녁이면 찾아오는 월요일병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직원들의 농담에서 봉사의 재미를 느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으로 말해요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 주제는
“요즘 내가 꼭 빠진 _____”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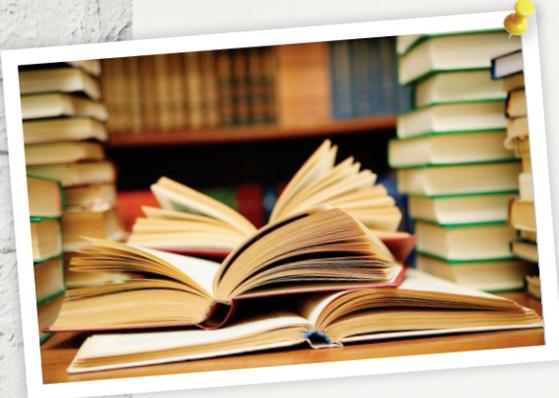


from SIMPAC홀딩스 이엔지사업부문 손인성 사원
제목 : 요즘 우리가 꼭 빠진 삼겹살 Day~!
내용 : 이엔지사업부문에는 6주 정도 간격으로 진행되는 삼겹살 Day가 있습니다. 쓰고 남은 드럼통과 프레스 만드는 철판의 잔재를 활용하여 삼겹살 구이판과 식탁을 만들어 숯불을 올리고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언제 한 번 검단에 오셔서 함께 즐기시죠, 모두 환영합니다!!(다만, 오시기 전 세계 살~짝 귀찮게 주세요 ^^)

from SIMPAC 해외영업팀 송시영 대리
제목 : 요즘 내가 새롭게 빠진 펜글씨 연습
내용 : 거의 모든 업무를 컴퓨터로 하다 보니 기쁨이나 악필인데 점점 더 심해져서 가끔씩 자필로 작성해야 할 때 많이 부끄러워 지곤 합니다. 글씨체 교정을 위해 펜글씨 교본을 구입하긴 했지만 얼마나 열심히 할 지는 의문입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사보에 자필로도 참여해 보겠습니다!



from SIMPAC메탈 생산팀 박철희 사원
제목 : 요즘 탁구 치는 재미에 꼭 빠졌어요
내용 : 사내 지하 헬스장에서 동료와 함께 치는 탁구를 통해 순발력을 기르고 있어요. 점심의 지투리 시간을 이용한 짧은 시간이지만 운동효과가 만점이에요.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하더라도 체력을 기르고 다이어트하는데 좋습니다



from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남인호 사원
제목 : 내가 꼭 빠진 취미는 독서!
내용 :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독서는 내면의 세계를 넓히며, 실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유익한 취미입니다. 바야흐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스마트 폰은 잠시 내려놓고 책을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요?(요즘 읽고 있는 책 :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from SIMPAC메탈로이
1공장 설비반 전기Part 이송대 사원
제목 : 요즘 내가 꼭 빠진 풍물
내용 : 우연한 계기로 시작한 풍물, 이제는 제 삶의 한 부분으로 깊게 자리했습니다. 작년부터 흥겨운 우리 가락을 장애우 분들께 서툴지만 가르쳐드리고 있고, 작년 연말에는 함께 공연도 했습니다.



from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전준호 사원
제목 : 요즘 내가 꼭 빠진 달리기
내용 :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 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짝 말라와도~" 유행가 가사처럼 요즘 같이 햇살이 따사로운 때, 저는 달리는 재미에 꼭 빠졌습니다. 올해 해번 마라톤에는 직원 가족들도 함께 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가족들과 함께 달리고 싶습니다.



*'사진으로 말해요' 코너에 SIMPAC인들의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매 호 해당 주제에 맞춰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사보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다음 호 주제는 "달라진 _____"입니다(6월 30일 마감).

당신을 칭찬합니다

SIMPAC 생산2팀의 김세진 과장이 수주설계팀의 김준범 과장에게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수주설계팀 김준범 과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주설계팀 특성 상 업무가 과중하게 지워져 있음에도 현장이나 타 부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본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제가 가공부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수주설계팀과 교류가 많습니다. 가공 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김준범 과장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입사는 저보다 빠르지만 동갑이다 보니 업무 이외에도 서로 회사 생활에 있어 어려운 점이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재무Part 송복동 과장이 설계팀 김진웅 대리에게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설계팀 김진웅 대리입니다. 자기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특별한 인연이나 공통점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제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회사 환경이나 여러 부분에서 낯설어 김진웅 대리에게 이것 저것 물어봤지만 늘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 묻기도 하며 편한 형 동생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SIMPAC메탈로이 1공장 전기로 B조 유형원 사원이 박동혁 사원에게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전기로 B조 박동혁 사원입니다. 매사에 열정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선후배, 형 동생 관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각 Part별 업무도 만능 엔터테이너처럼 잘하고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친형제처럼 기본 좋은 일이나 혹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SIMPAC메탈로이 2공장 정련반 변상관 사원이 가공반 권용호 사원에게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가공반 권용호 사원입니다. 외모만큼 훈훈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후배에게는 좋은 선배, 선배에게는 든든한 후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맡은 일도 책임감 있게 성실히 해내는 모습이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부서가 달라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볼 때마다 친동생 대하듯이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고 해주십니다. 앞으로로도 지금처럼 인생상담을 할 수 있는 끈끈한 관계로 지내고 싶습니다.

SIMPAC메탈 생산팀 전기로 C조 박재갑 사원이 전기로 B조 이정훈 사원에게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전기로 B조 이정훈 사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짜증나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항상 밝게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급하게 포항에 내려갈 일이 있어 미처 아파트 창문을 확인 못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강풍주의보가 내려 난처한 상황이 되었죠. 그때 이정훈 사원에게 부탁했는데 바로 가서 창문을 확인해 주기도 했어요. 여러모로 고마운 후배입니다.

두 분만의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지난해 같은 조에서 함께 일하는 동안 묵묵히 잘 따라준 후배입니다. 3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다시 한 번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동혁 사원과
유형원 사원



변상관 사원과
권용호 사원



박재갑 사원과
이정훈 사원

우리들의 이야기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따뜻한 봄날, SIMPAC인들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러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SIMPAC인들에게 축하의 말씀 전해주세요.

3월 15일

SIMPAC 기술지원팀
송혁 사원



4월 4일

SIMPAC메탈 생산팀
박철희 사원



4월 25일

SIMPAC 개발팀
방은미 사원



4월 18일

SIMPAC 개발팀
김정훈 대리



4월 26일

SIMPAC산기 기술지원팀 김덕현 대리



5월 9일

SIMPAC메탈 생산팀 민석환 사원



송복동 과장과
김진웅 대리